

프란치스칸 청소년관련 봉사
우리가 할일
캐터린 모랄로 OFS
국가형제회 청소년분과 담당

국가형제회 청소년분과에서는 전에 재속회원들은 힘을 모으고 영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 젊은 사람들을 복음적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힘을 합할 수 있는가?

미국의 14 개 지구형제회에서는 청소년 책임자를 두고있고 다른 지구에서도 청소년분야를 담당할 형제자매를 훈련시키면서 책임자를 구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 각 형제회마다 청소년담당자를 두는것을 목표로 한다. 즉 청소년들에 대한 아이디어, 정보, 문제점, 성공사례등을 공유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것이 목표이다. 지구평의원들도 청소년 단체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기대와 절차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청소년 분야를 연구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많은 지구와 형제회는 우선 청소년을 잘 지켜보기만 하면된다. 즉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켜봐야 한다. 누구나 부족하고 망가진것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한다. 프란치스칸 영성이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 그 보다는 시간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도와 주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 활활 타오르게 할 수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해 지려는 욕망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이 방법을 서로 얘기해 보자.

어떻게 우리는 젊은이들을 우리에게 오게할수 있는가?

최근에 출판된 “불리움: 하느님께 “네”라고 응답한 후에 일어나는 일” 의 저자인 작은형제회 수사 케이지 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프란치스코를 따르고 닮고자 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란 사실을 아는 겸손함이다.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따르는 분을 따르라고 했다.” 세상에 필요한것은 예수님이고, 재속회원의 임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이 되는 것이다. 특히 젊은 가톨릭 신자들, 심지어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친구들에게 빛이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과 함께할때 우리의 모범과 복음적 기쁨을 보여 줌으로써 빛이 될수 있다.

당신의 몫을 구하십시오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방법은 개인마다, 형제회 마다, 지구 마다 다를것이다. 예수님은 “두려워 하지 마라.”(마르 6:50)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고 말씀하셨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교황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에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각성시켰던 것과 같은 용기로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 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129 항) 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땅과

가까운 물가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물가에서 부터 조금씩 시작하는것도, 거기에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깊은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을 도와 주는 일부터 시작할 수도있다. 좀 있으면 우리도 용기를 내어 그 깊은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청소년 분야에 경험을 가진 많은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형제회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는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적어도 다섯 지구가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관계를 맺고있다. 어떤 봉사자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양성자료를 만들어 쓰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을 영화나 기도회나 정평환 프로그램에 초대했고 어떤이들은 피정계획을 같이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기시작하였다.

청소년 분야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누군가는 첫 삽질을 해야한다. 누군가는 팀을 만들어 주변에 청소년 연령대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을 어떻게 데려 올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청소년 분과의 일원이다. 우리의 목표가 같고, 우리의 생각과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프란치스칸 형제회 삶을 체험할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불리운 본분을 다하고 있는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축복을 드리며, 여러분의 기도와 노고에 감사드린다.